

10. 首都圈 道路網 擴充計劃

資料提供：建設部

1. 현황 및 문제점

- 교통유발요인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소통난이 심각
 - 인구: 42%, 자동차: 53%, 제조업체: 60%
 - 도로망이 방사형 위주로 발달되어 있어 교통배분체계가 미흡
 - 서울진입 방사형도로
 - 고속도로: 3개 노선(경인, 경부, 중부)
 - 국 도: 13개 노선
 - 순환고속도로망이 부재
 - 교통수요에 비하여 대부분 도로시설의 용량이 초과
 - 서울진입 방사형도로(16개 노선)중 중부고속도로, 통일로 이외의 14개 노선이 교통정체 심각
 - 전국의 각급도로 1,160km가 용량초과
 - 수도권에 598km(52%)가 편재
- ※ '92년에는 용량초과도로가 797km로 증가될 전망이다.

구 분	1990	1992	2001
• 전 국	1,160km	2,040	5,280
• 수 도 권	598	797	1,355
국 도	406	547	934
지 방 도	105	149	320
고 속 도 로	87	101	101

- 신도시,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계획에 따른 대량 수송시설 확충이 필요.

2. 대 책

- 건설부에서는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외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주축으로 주변고속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 광역 도로망 체계구축을 추진중에 있음.
-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연장이 126.1km(중부고속도로 병용구간 5.6km 포함)이고 총사업비가 3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
 - 현재 시행중인 판교-구리간 23.5km는 '91년까지, 구리-퇴계원간 5.0km는 '93년까지 완공하고
 - 남부구간인 일산-안양-판교간 57.1km는 금년에 착수하여 '96년 완공할 계획이며
 - 나머지 북부구간 일산-퇴계원간 34.9km도 2000년까지는 완공토록 추진계획임.
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통과 교통량 및 신도시간 교통량을 서울외곽에서 분산처리하게 되어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.
- 수도권 주변 고속도로 확충계획은
 - 현재 교통체증이 심각한 경인고속도로 신월-부평간 11.7km 및 경부고속도로 양재-수원간 18.5km는 '92년까지 확충하고
 - 신갈-안산간 고속도로 23.2km는 '91년까지, 서해안고속도로 인천-안산간 28.0km 및 제2경인고속도로 15.5km는 '93년까지, 시흥-안산간 고속도로 12.5km는 '94년까지 건설토록 추진.
- 또한 신도시개발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
 - 분당 신도시 진입도로인 장지-분당간 6.7km, 양재-분당간 16.1km 도시고속도로를 '92년까지 건설하고
 -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인 성산대교-일산 19.2km, 서오릉-일산간 10.5km, 수색-일산간 11.5km를 '92년까지 건설.

서울外廓循環高速道路計劃

